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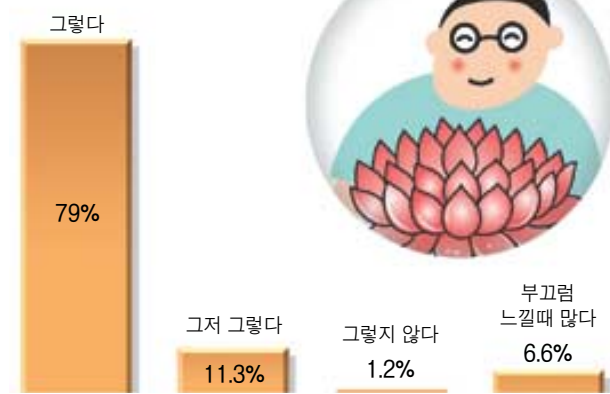
## 10명중 8명 '자부심 느낀다'

'부처님 가르침 이해하고 있다' 26%

재가불자 10명중 8명은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6명은 자신의 수행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불자는 26%에 불과했다. 불교의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우리는 선우·본지, 재가불자 인식 설문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나?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6.5%에 불과했으며, 70.5%가 '조금 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0.6%가 '실천'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의 사회적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받고 있다' (47.8%)와 '신뢰받지 않는다' (47.4%)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불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승가 자질 부족'과 '승가의 불협화음'을 들었다.

'불교적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수행' (65.1%)이 꼽혔으며, 응답자의 87%가 윤회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행형태나 불교의 사회적 신뢰도 등에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조건적 신앙' 형태를 보였다.

관객조사 6·7년 설문결과에 따르면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9% (1,108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 (17명)로 극소수였다. 또 '자신의 수행 형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20.1% (282명),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8% (152명)였다. 불자들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결과다.

불교의 사회적 신뢰 여부 의견 '팽팽'

이같은 결과는 <현대불교>와 <우리는 선우>가 공동으로 본지 재가불자 구독자 중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4월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에 걸쳐 우편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1,402명이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대불교>와 <우리는 선우>가 공동으로 본지 재가불자 구독자 중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4월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에 걸쳐 우편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1,402명이 응답했다.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8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 “무명 걷고 자비 광명 가득하길”

8일 부처님오신날 남·북 모든 사찰서 법요식

조계사 법회 8천명 참석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8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명사를 비롯한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총무원장 법장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각 단체인, 정계·관계·문화계 인

사 등 8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미혹의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고 오늘 밝힌 연등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에서 "세간을 뛰어넘는 문도 마음에서 열리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도 마음에서 열

을 수 있다"고 법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창동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화합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불자들의 정진과 기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은 "불퇴전의 마음으로 웅망정진해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내용의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남북 불자에 봉축메시지 법장 스님·박태화 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6일 남과 북의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봉축메시지를 각각 발표했다.

법장스님은 북한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봉축메시지에서 "분단의 역사를 평화와 상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는데 남북의 불자들이 일심으로 기원하자"고 말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남한의 사부대중에게 보내는 인사말에서 "불심화합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행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 뉴스속뉴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8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조계종의 최고 어른이 불교 최대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법전스님의 이날 법요식 참석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 이래 종정을 지낸 스님은 모두 9명이다. 하지만 81년 6대 종정에 취임한 성철스님(7대 종정까지 역임)부터 이후 서암(8대)-월

### 종정 스님의 법요식 참석

하(9대)-해암스님(10대)으로 이어지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느 스님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종정 스님의 개인 소신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역대 총무원장들이 종정 스님의 법요식 참석을 적극 요청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현 11대 종정인 법전스님이 이날 법요식에 참석한 가장 큰 이유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장스님은 얼마 전 해인사를 찾

은 종정스님의 참석에 반가움을 표했다. 한 자리에서 종단의 최고 어른 두 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종정 스님의 법요식 참석이 관례화되길 기대한다.

한 말어 전까지 종정에경실장을 지내며 법전스님을 모셨던 해인사 원철스님은 "두 분께서는 그전부터 서로를 존경해 오셨다. 총무원장 스님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종정스님께서 참석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전통불교 꽃꽂이 회원 모집**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꽃 꽃꽂이 으뜸-  
(한국화 전통불교 꽃꽂이 강사지, 박태화 위원장)  
011-541-7769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8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 봉축특집 포함 44면 발행합니다

<b>재가불자 인식설문</b> 6-7면	현대불교신문사와 우리는 선우가 재가불자 1402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우리시대의 재가 불자들은 자신의 수행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 결과를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b>본각스님이 쓴 '6남매 출가이야기'</b> 27면	6남매가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계'를 이어 6바라밀의 실천행자가 되자고 서원한 본각스님의 집안 이야기. 함께 출가하자며 6남매 손을 이끌고 산으로 오른 어머니, 그러나 정작 어머니는 출가를 못한 채 돌아가시고...
<b>내가 일하는 곳을 불국도로</b> 5면	부처님오신날의 소망 9면
<b>비구니스님 파워 세상을 비춘다</b> 15면	각종 단 지도자 동족법어 17면



## BOWATER의 용지는 전세계 각국에 뉴스를 전합니다

BOWATER는 미국 South Carolina, Greenville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보워터홀라제지(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10개의 공장에서 생산된 연간 3억 5천만톤의 신문용지를 중남미, 유럽,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ISO 14001 획득  
국제표준재가(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인증 획득



**보워터홀라제지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본 사: 경기도 양주시 삼의면 남면리 1699-1 TEL: 091)461-6114 FAX: 091)460-6158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5-1 동우빌딩 TEL: 02)597-1576 FAX: 02)340-2581